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II): 동북 연해지역¹⁾

1. 랴오닝성(辽宁省)의 최근 변화와 전략

가. 개요

□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에서는 현재 외상투자기업의 새로운 투자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랴오닝 연해²⁾ 경제구(经济区)에 대한 “랴오닝 연해경제지역³⁾의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⁴⁾”을 통과시킴(2009.7.1).

－ ‘발전계획’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국가발전 계획이 된 랴오닝 연해경제지역 개발건설은 동북 구(旧)공업기지의 진흥과 보하이(渤海)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1)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 (I)~(III)편 중 두 번째 편임.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 (I): 동남연해지역」은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제09-15호(2009년 8월 18일) 참조.

2) 랴오닝 연해는 길이가 약 2,900km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항만이 외해(外海)와 외국으로 통하는 경로이며 다롄항(大连港), 진저우항(锦州港), 잉커우항(营口港), 후루도항(葫芦岛港), 단둥항(丹东港) 등 우수한 항구가 밀집해 있고 세계 140여 나라와 지역이 통항(通航)하며 동북아가 아태지역으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경로임.

3) 랴오닝 연해 경제지역에 계약된 프로젝트는 총 756개, 총 투자액은 약 4,375.9억 위안임. 이 중 외자기업과 합작한 금액이 133.8억 달러에 달함(2009년 1/4분기 기준). 한국의 경우 STX 조선해양이 다롄의 창싱도임항공업구(长兴岛临港工业区)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다롄 STX 조선해양 기지”를 건설하였음(2009년 6월 초까지 STX는 창싱도에 총 134억 위안을 투자).

4) 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랴오닝성 공상행정관리국도 연해경제지역 발전 추진을 위해 “공상행정 관리국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랴오닝 연해경제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관한 몇 가지 의견(이하, 의견’)5)” 을 발표함(2009.8.25).
- ‘의견’에서는 시장진입제도와 서비스 메커니즘을 대폭 조정하였고, 특히 창업 지원·체제정비·추진·브랜드 육성 분야를 혁신하였음.

나. 주요 내용

- ‘발전규획’은 산업발전, 도농발전, 사회사업, 기초인프라, 개방협력, 자원 환경, 보장 조치 등 방면에 대하여 랴오닝 연해 경제지역의 발전방향을 확립하였음.
- ‘회의’는 다롄(大连), 단둥(丹东), 진저우(锦州), 잉커우(营口), 후루도(葫芦岛) 등 연해 도시를 포함한 랴오닝 연해 경제지역의 발전은 △동북 구(旧) 공업기지 진흥, △중국 연해경제 구조 완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대외개방 확대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음을 밝힘.
- 또한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현재의 개발정도, 자원 환경 수용능력 및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전공간의 최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함.
- 이 외에 △동북지역 항로와 대외개방 관문 기능 수행, 동북지역 대외개방 수준 제고, △연해 항구자원의 통합조정을 통한 수운, 물류 등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 △선진제조업 위주의 현대산업 시스템 형성, △현대농업 발전, △기초인프라 건설 완비, 자원절약·환경보호·생태건설 강화·지역부양능력·지속가능발전 등의 강화를 강조함.

- ‘발전규획’ 통과로 오점일선(五点一线)⁶⁾의 랴오닝 경제가 일핵(一核: 다롄)·일추(一轴:

5) 关于充分发挥工商行政管理职能作用促进辽宁沿海经济带发展的若干意见

6) 오점일선(五点一线)이란 랴오닝 대외개방의 새로운 전략으로 현(現) 국무원 부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이 2005년(당시 랴오닝

다렌-잉커우-판진·양측(兩翼: 보하이측과 황하이측)으로 바뀌면서 중심도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됨(그림1 참조).

<그림 1> 라오닝 경제의 일핵(一核)·일축(一軸)·양측(兩翼) 구조



- 계획기간(2009~2020) 동안 주축을 비롯하여 양측인 보하이측과 황하이측을 강대하게 하여 일핵, 일축, 양측 간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 ‘발전규획’ 통과로 공업원구, 항구 등과 같은 정책 지원구(政策支持区)가 22개 더 증가함.
- 다렌 12개, 잉커우 4개, 진저우 3개, 판진, 후루도, 싱청(兴城)에 각각 1개씩 증가

성 위원회 서기) 제시한 개념으로 오점은 다렌 창싱도임항공업구(长兴岛临港工业区), 잉커우 연해산업기지(营口沿海产业基地)·판진 랴오빈연해경제구(盘锦辽滨沿海经济区), 랴오시 진저우만 연해경제구(辽西锦州湾沿海经济区), 랴오닝 단둥산업구(丹东产业区), 다렌 화원커우경제구(花园口经济区)를 뜻하며, 일선은 서쪽의 후루도 쉰이중현(绥中县) ~ 동쪽의 단둥 동강시(东港市)를 지칭.

□ 랴오닝 연해 경제지역의 산업발전 중심은 현대서비스업, 공업, 현대 농업이 될 것임.

- 다롄은 수운, 금융연구개발, 물류, 정보서비스 등의 핵심 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장하고 동북아의 국제수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 지역성 금융센터(区域性金融中心), 산업집적지역(聚集区)을 조성할 것이라고 함.

- 다롄의 동북아 국제수운센터는 2012년까지 기본적으로 완공될 것이며, 다야오완보세항구(大窑湾保税港区), 컨테이너 물류기지, 싱하이만 금융상무구(星海湾金融商务区)를 건설할 것이라고 함.

- 환보하이측의 진저우는 지역 교통허브와 랴오시(辽西) 중심도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진저우시와 진저우항의 서비스 기능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여 임항산업기지(临港产业基地)를 건설할 것이라고 함.

- 진저우 빈하이신구(锦州滨海新区), 진저우만 국가정제화기지(锦州湾国家炼化基地), 국가석유저장기지(国家石油储备基地)를 건설

- 석유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판진은 석유설비제조업기지(石油装备制造基地)와 중국의 중요 상품식량생산기지(产品粮食生产基地)를 건설하고 습지 등 생태자원 보호를 강화하여 판진랴오빈 경제구⁷⁾를 녹색프로젝트에 입각하여 신속히 건설

- 후루도는 비철금속, 전자정보 등 산업 집적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베이항 공업구(北港工业区)를 건설

- 황하이측은 장허공업원구(庄河工业园区), 화웬커우경제구, 등샤허임항공업구(登沙河临港工业区), 창산群도경제구(长山群岛经济区), 피양루도경제구(皮杨陆岛经济区)와 단둥산업구를 건설·발전시킬 계획임.

- 연해, 연강(沿江)의 지리적 우위가 없는 단둥은 관광과 무역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더욱

7) 랴오닝성 판진시의 최남부에 위치, 계획면적이 110km²이며 2006년 6월 정식으로 오점일선에 편입된 연해 중점발전 지역으로 이미 약 111개의 프로젝트가 계약되어 있으며 그 중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는 70개로 2010년 말까지 경제구에 투자되는 총 투자액이 1,000억 위안(누적액)으로 예측

확장하여 현대화된 변경(边境) 도시로 건설

□ 랴오닝성 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의견’은 기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의견’에서는 기업의 등기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출자기한을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

- 현행 등기제도는 사업장 주소지(경영 장소)에 상응하는 재산권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견’에서는 사업장 주소지(경영 장소)가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장소가 명확하고 공업구 집중관리구(工业区集中管理区) 또는 각 지역의 투자 유치부서가 서면으로 동의하게 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함.

- ‘의견’에서는 연해 5대 발전지역⁸⁾에 있는 모든 기업의 명칭이 그 발전원구(发展园区) 앞에 “랴오닝”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省) 공상행정 관리국이 아닌 해당지역의 등기기관에서 직접 심사 비준하도록 명시함.

· 이로써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랴오닝 xxx공업원구(공업구) xxx회사” 식의 명칭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더불어 랴오닝성 물가국(物价局)과 랴오닝성 재정청(财政厅)에 의하면 내년 연말 전 랴오닝은 연해 중점발전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영비용(零收费)”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함.

· 소위 영비용이란 기업들이 국가, 성, 시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기업과 관련한 행정사업 비용 면제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재정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의견’에서는 지주 산업과 중점산업의 제품 서비스상표 및 랴오닝의 특산품(농산물) 상표, 지리적 표지 등 성(省) 유명상표(著名商标)⁹⁾의 승인을 신청 시 생산액, 납세액,

8) 다롄 창싱도임항공업구, 잉커우 연해산업기지, 랴오시 진저우만경제구, 단둥산업원구, 다롄 화웬커우공업원구

광고량, 상표등록 시간 등 에 대한 조건을 일정정도 완화하였음.

- 현행 법률에 의하면, 기업이 유명상표 승인 신청 시에 반드시 시(市) 유명상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 유명상표 승인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이미 시의 유명상표승인을 받은 기업은 성 유명상표 승인 신청이 보다 용이해짐.

2. 산둥성(山东省)의 최근 변화와 전략

가. 개요

□ 랴오닝과 지리적 위치가 비슷한 산둥성(山东省)은 1990년대부터 국가발전 계획이 아닌 성(省)내 지역발전 계획만을 제정하였으나 후진타오 주석의 산둥 시찰(2009년 4월 하순)로 국가급 발전계획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후진타오는 시찰 시 △해양경제¹⁰⁾의 발전 추진, △과학적인 해양자원 개발, △해양우수 산업 배양,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건설 등을 제의함.

- 이후 산둥성 위원회와 성 정부 명의 하의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¹¹⁾(이하 ‘지도의견’)” 이 하달됨(6.30).

-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기획(이하 ‘기획’)¹²⁾” 이 정식으로 편성되기 시작(8.17)

□ 2008년 4월 산둥성이 발표한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발전 기획¹³⁾”의 보완을 위한 현지조사(2009.3.24~31)¹⁴⁾ 실시 후, 현재 중앙의 각 부와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있음.

9) 유명상표란 일반적으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승인하는 지방 법규규범으로 승인받아 성에 한하여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표를 말함. 이와 비슷한 용어로 중국 국가 공상행정 관리국에서 승인하는 저명상표(驰名商标)가 있음.

10)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부주임 두잉(杜鹰)에 의하면, 2008년 산둥성이 실현한 해양 총 생산액은 5,346억 위안으로 산둥성 GDP의 17%를, 중국 전체 해양 경제량의 18%를 차지한다고 함(《大众日报》, “国际视角下的半岛蓝色经济区”, 2009.8.13).

11) 关于打造山东半岛蓝色经济区的指导意见

12) 山东半岛蓝色经济区规划

13) 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发展规划

-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¹⁵⁾ 황허삼각주 개발의 주요 방향은 생태 고효율로써 현대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효율 생태경제구를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지도의견’은 산둥 반도 녹색 경제구 건설이 △투자확대와 내수촉진, 산둥성 경제의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 추진, △발전유형의 신속한 전환과 산업구조화 업그레이드 추진, 효율적인 경제발전, △대외개방 확장, 국제산업 이전의 수용 및 국제협력과 국제경쟁 참여에 유리하다고 명시
- 또한 ‘지도의견’에서는 녹색경제구 건설은 중국 해양과학기술 교육센터(海洋科技教育中心), 해변국제여행지, 해양생태 문명시범구(文明示范区)등의 조성이라고 밝힘.
- 산둥 반도 녹색경제 발전의 장기적 목표는 환보하이~창장삼각주를 연결하고 한중일 협력의 선도 지역(合作先导区)을 조성하여 중요한 성장점을 형성하는 것임.
- 북으로는 텐진 빈하이신구(天津滨海新区)와 협력하고 환보하이 개발에 참여하여 동북아 경제구의 협력을 강화
- 남으로는 항구, 철도를 이용하여 창장삼각주와 준하이경제구(淮海经济区)¹⁶⁾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동으로는 한일(韩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과 자본 이전을 수용하여 대외개방을 연해에서 내륙으로 확장
- 서로는 허난(河南)·산시(山西)·허베이(河北)·샨시(陕西)등의 성과 협력을 강화

14)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등 25개 부서의 총 78인이 참여함.

15) 황허삼각주의 이용 가능한 토지면적은 텐진 빈하이신구(天津滨海新区)의 2배 이상인 약 811만 무(亩, 1무= 666.67㎡)임.

16) 1986년 성립된 것으로 장쑤(江苏), 산둥,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4개 성과 14개 지역으로 구성, 중심도시는 장쑤성의 쉬저우(徐州)이며, 경제구의 총면적은 7.8만 km²임.

□ ‘지도의견’에서는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건설은 “일구삼대(一区三带)”의 발전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시함(그림2 참고).

- 일구란 전면적인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 건설을 뜻함.
- 삼대란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 경제구 계획 건설 지역에서 연해 고효율 생태 산업 지역, △자오둥(胶东)반도에 연해 첨단 산업지역, △르자오 우수강철 기지(日照精品钢铁基地)를 중점으로 한 루난 임항산업대(鲁南临港产业带)라는 산업지역을 형성하는 것임.

<그림 2> 산둥 반도 녹색경제구의 “일구삼대(一区三带)” 발전구조



□ ‘규획’ 편성이 정식으로 실시됨(8.17).

- 이번 ‘규획’은 지역적 규획이면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총체적 규획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영역을 포괄하며 연해 각 도시 및 내륙 중심지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함.

- 또한 ‘규획’은 1개의 총체적 규획 외에, 구체적으로 모두 25개 규획¹⁷⁾이 있음.
-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山东省发展和改革委员会) 주임 페이원량(费云良)은 25개 규획은 1개의 총체적 규획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며 10월 전까지는 초고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힘.

□ ‘지도의견’은 총체적 규획과 25개 규획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발전 임무를 제시함.

-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1단계는 2015년까지 핵심 경쟁력을 갖춘 해양우수산업을 육성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산업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 국내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동 반도 녹색경제구를 건설하는 것임.

□ 국가계획 측면의 황허삼각주 개발건설의 새로운 산업구조는 “사점(四点), 사구(四区), 일대(一带)” 형태임.

- 즉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웨이팡(潍坊), 차이저우(棗州) 4개 항구(사점)를 중심으로, 4대 임항산업구(临港产业区) 건설(사구)하여, 산동성 북부 연해 경제지대(일대)을 형성하는 것임.

- 현대산업체제는 황허삼각주 개발의 핵심임.

· “고효율, 생태, 규모, 혁신”을 중심으로 농업방면에 농촌 신(新)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우량곡물면화 고효율 생산기지(优质粮棉高效生产基地), 녹색과일채소생산기지(绿色果品蔬菜生产基地)와 녹색생태목축기지(绿色生态畜牧基地)를 조성

· 공업방면에서 하이테크 신기술산업을 우선 발전시킨 후 석유화학·염화학·석탄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방직·제지 등 전통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순환(循环)형 산업 체계를 육성하는 것임.

17) 해양에너지, 현대서비스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발전, 해양 생물 산업발전, 해양 장비제조업, 임항 중화학 공업발전, 해양 화학 공업산업발전, 정보서비스, 현대해양 어업발전, 생태환경보호, 대외개방, 원구(园区)발전, 교통운송발전, 해양 공정 건축업 발전, 해양 생태환경보호 산업발전, 현대농업발전, 수리발전, 토지개발이용, 해저광산물 개발채굴 가공, 도시체계건설, 교육사업발전, 과학기술사업발전, 보건사업발전, 인력자원과 사회사업발전, 해양문화·관광업발전 등 25개.

- 현대물류, 생태관광, 금융보험업을 중점으로 황허삼각주의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황허삼각주 지역에 19개의 현대물류원구(现代物流园区)를 건설하며 황허삼각주개발은행을 조직하고 동잉과 빈저우에 지역 금융센터를 조성

- 어업은 황허삼각주의 중요한 지주 산업으로 현대어업의 발전을 위해 2009~2020년까지 총 3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어업자원개선과 표준화 생태양어장 정비 등 공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 산둥성의 이용가능 토지면적 중 약 430만 묘를 차지하는 동잉시는 ‘신에너지 장비제조기지(新能源装备制造基地)’ 건설을 준비 중임.

- 산둥은 동부 연해지역의 3대 풍력발전 지역 중 하나로 9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4개가 동잉경제개발구(东营经济开发区)¹⁸⁾에 밀집해 있음.

- 산둥성은 향후 8년 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함.

- 동잉경제개발구 내에는 신에너지산업원(新能源产业园)이 들어설 예정이며, 토지공급, 자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대체에너지장비제조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특히 태양력, 풍력,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친환경 기술 등 4대 산업구를 건설할 계획임.

18) 동잉경제개발구는 산둥성 정부가 비준하여 설립된 성급 경제개발구와 하이테크 기술 산업 개발구이면서 산둥성 정부가 비준하여 설립된 산둥성 가공제조기지(加工制造业基地)를 가리킴.

<참고자료>

《新华网》, “辽宁对沿海重点发展区域内企业继续实行零收费”, 2009.7.2

《21世纪经济报道》, “一核一轴两翼新定位辽宁沿海经济带助推东北振兴”, 2009.7.7

《辽宁日报》, “着力抓好九方面工作东北地区全面振兴步入快车道”, 2009.8.16

《东北新闻网》, “辽宁省工商局六大措施促进辽宁沿海经济带发展”, 2009.8.25

《第一财经日报》, “东部沿海最后的区域规划空白山东规划蓝色经济战略升级”, 2009.7.8

, “山东突围: 走向‘蓝色’”, 2009.8.1/8.2

《大众日报》, “半岛蓝色经济区规划编制启动”, 2009.8.18

《中国日报》, “黄河三角洲开发建设进入国家战略”, 2009.7.19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